

# 말레이시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6. 5.

I. 일반개황 .....	1
II. 경제동향 .....	2
III. 정치·사회동향 .....	7
IV. 국제신인도 .....	10
V. 종합의견 .....	12

## I. 일반개황

면적	330천 Km <sup>2</sup>	G D P	2,959억 달러 (2015년)
인구	30.99백만 명 (2015년)	1 인 당 GDP	9,548달러 (2015년)
정치체제	연방형 입헌군주제	통화단위	Ringgit
대외정책	비동맹 중립	환율(달러당)	3.91 (2015년 평균)

- 말레이시아는 말레이 반도 남부에 위치한 서말레이시아(구 말라야연방)와 보르네오 섬 북서부의 동말레이시아로 이루어져 있음. 서말레이시아는 태국, 싱가포르와 인접해 있으며, 동말레이시아는 남쪽으로 인도네시아령인 보르네오 섬과 국경을 이루고 있음.
- 1957년 8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말라야 연방을 수립함. 이후 1963년 9월 사라와크(Sarawak) 및 사바(Sabah)와 싱가포르(1965년 분리 독립) 등 영국령이 합류하여 말레이시아 연방이 결성됨. 현재 13개 주와 3개 연방령으로 운영되고 있음.
- 입헌군주제로 국왕은 9개 주의 통치자인 술탄(Sultan) 중에서 5년 임기로 선출되며, 총리 및 내각을 임명할 권리와 군대 최고 사령관으로 통솔권을 가짐. 내각은 실질적인 행정권을 가지고 의회를 책임지고 있으며, 내각의 수장인 총리는 하원 다수당의 당수가 맡음.
- 원유, 천연가스, 천연고무, 팜오일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전기전자 제품을 중심으로 공업화에 성공한 중소득국임. 향후 2020년까지 고소득국 진입을 위하여, 제11차 5개년('16~'20년)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경제·정부변화 프로그램 등의 신경제 모델을 적극 추진 중임.

## II. 경제동향

### 1. 국내경제

<표 1> 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: %

구 분	2012	2013	2014	2015	2016 <sup>f</sup>
경제성장률	5.5	4.7	6.0	5.0	4.3
소비자물가상승률	1.7	2.1	3.1	2.1	2.6
재정수지 / GDP	-4.3	-3.8	-3.4	-3.2	-3.4

자료: IMF, EIU.

#### □ 주요 수출품인 석유, 천연가스 가격 회복 지연으로 경제성장세 둔화

- 2012~14년 중 경제성장률은 세계경기 둔화로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, 민간소비 증가와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힘입어 연평균 5%대를 상회함.
- 2015년에는 주요 수출품목인 석유, 천연가스 가격 하락으로 성장률이 전년 대비 1% 포인트 하락한 5.0%를 기록함. 2016년에도 에너지 국제가격의 회복 지연과 함께, 주요 수출대상국\*인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로 성장률이 지속 하락할 전망이다.

\* 싱가포르(1위, 수출액 320억 달러), 중국(2위, 308억 달러), 일본(3위, 254억 달러) 순

#### □ 에너지,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2%대의 낮은 물가상승률 지속

- 물가는 2012년 이후 국제유가 등 상품 및 식료품 국제가격 상승과 정부의 연료비 보조금 축소 등에 따라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음.
- 2015년에는 에너지, 원자재, 식료품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 영향으로 물가상승률이 2.1%를 기록함. 한편 2016년에 링깃화 환율 상승\*으로 수입물가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나, 여전히 2%대의 낮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.

\* '16. 5월 기준 작년 1월 3.5742링깃/달러 대비 약 12% 상승한 4.0203링깃/달러 기록

## □ 인프라개발 투자, 저유가 기조 등으로 만성적인 재정적자 지속

- 말레이시아는 경기부양과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지출, 비효율적인 조세징수 등으로 2012~14년중 만성적인 재정적자 기조를 시현함.
- 2015년에는 저유가에 따른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연료비 보조금 축소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3.2%로 하락함. 2016년에는 인프라 투자 확대, 저유가 기조에 따른 세수 감소\* 등으로 전년보다 다소 확대된 3.4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\* '14년 정부수입의 34.0% → '15년 21.5% → '16년 13.0% 예상

## 2. 경제 구조 및 정책

### 가. 구조적 취약성

#### □ 에너지 관련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국제유가 변동성에 취약

- 말레이시아는 원유, 천연가스 등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던 경제구조에서 전자제품 중심의 제조업과 관광업 등 서비스업으로 경제구조를 다각화 하였음. 그러나,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은 여전히 석유 등 에너지 관련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.
- 특히, 재정수입의 약 30% 이상을 에너지 관련 산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유가 하락에 취약함.

※ '14년말 기준 석유 관련 수입은 GDP의 16%, 정부수입의 약 30% 이상을 차지 하고 있어 최근 유가하락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.

#### □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에 따른 좁은 재정 운용폭

- 세수 부족, 보조금 지급에 따른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가 여전히 GDP의 3%를 상회하고 있으며, 비효율적인 조세징수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재정운용폭이 좁은 실정임.
- 이에 정부는 소비세 도입 등 조세제도 개편\*과 연료비 보조금 축소 등을 통하여 세수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.

\* '15. 4월부터 기존 16%의 서비스·판매세(Service and Sales Tax: SST)에 더하여 모든 상품과 서비스 산업에 대하여 6%의 상품·서비스세(Goods and Services Tax: GST)를 부과하도록 조세제도를 개편

## 나. 성장 잠재력

### □ 주변 동남아 국가에 비해 우수한 인프라 환경 구축

- 정부의 일관된 인프라개발 정책으로 주변 동남아 국가에 비해 도로, 항만, 통신시설 등에서 양질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외국인투자 유치에 유리함.
  - 2015년 World Economic Forum의 'Global Competitiveness Report'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인프라 부문에 있어 전체 140개국 중 24위를 기록 중이며, 부문별로는 철도(13위), 도로(15위), 항로(16위) 및 전력공급(36위)임.
  - 또한 2016년 기업경영 여건\*(Doing Business) 종합순위는 전체 189개국 중 18위로 상위권을 기록함. 이는 2010년 23위에서 5단계 상승한 것으로, 기업경영 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.
  - \* 세계은행그룹 국제금융공사(IFC)는 매년 9월말 세계 189개국에 대한 기업경영 여건을 평가
  - ※ 주요 부문별로 소액투자자 보호(4위), 전기공급(13위), 사업개시 절차(14위), 자금조달(28위)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

### □ 원유,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 보유

- 말레이시아는 토지의 50% 이상이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, 천연 고무와 팜오일이 풍부하여 세계 주요 자원수출국 지위를 획득함. 또한, 원유,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자원과 주석 등 다양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에너지 및 자원 개발에 유리함.
  - 특히, 팜오일의 경우 세계 최대 수출국이자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 제2위 생산국임. 최근에는 화장품 및 바이오디젤의 주원료로 주목을 받으며 외국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.
  - 아울러, 2014년말 기준 원유(38.5억 배럴) 및 천연가스(2.8조 m<sup>3</sup>)의 확인 매장량이 아시아 국가 중 중국, 인도네시아에 이어 3위이며, 주석(100.0톤)은 세계 5위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.

## 다. 정책성과

### □ 중장기적인 경제개발 정책에 기반한 안정적인 경제성장 달성

- 말레이시아는 1970~90년 신경제 정책(NEP), 1991~2000년 국가개발 정책(NDP), 2001~10년 국가비전 정책(NVP) 등 정부 주도의 중장기적인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함.
  - 이를 통해, 고무 등 1차 자원 수출과 농업 생산에 의존하던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고 전기, 전자산업과 함께 풍부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제조업 부문을 육성하여 5%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함.
  - 아울러,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6년에서 2020년까지의 11차 개발계획(11th Malaysia Plan)과 함께 정부변화프로그램(GTP) 및 경제변화 프로그램(ETP) 등 신경제 모델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.
  - 2020년까지 지속적인 경제발전(1인당 GNI 15,000달러 진입)을 도모하고 중소득국에서 고소득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노력 중임.
    - 특히, 경제변화 프로그램은 민간투자를 중심으로 석유·가스, 팜오일 산업, 금융서비스, 전기전자, 관광업, 민간의료서비스 등 12개 부문을 육성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함.
    - 아울러,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 세제 인센티브\*를 유지하는 한편, 2015년에는 제조업 고도화, 투자 기업들의 역내 거점 유치에 위한 세제혜택 개편안 등 신규 인센티브 지침을 발표함.
- \* 관광업 등에 대해 5년간 소득세를 감면(소득액의 30%에 대해서만 과세)하고, 투자세 공제를 받는 제조업, 첨단기술 산업 등에 대해 5년 내에 발생한 자본 지출액에 대해 60%의 공제혜택 부여 등

### □ 양자간 및 ASEAN FTA, TPP 등을 통해 시장개방 가속화

- 말레이시아는 일본, 파키스탄, 인도 등 총 8개 국가와 양자간 FTA를 체결하였으며, ASEAN\* 차원의 FTA에도 가입하였음.
- \* 동남아시아국가연합(Association of South-East Asian Nations)으로 1967년 8월 설립되어 현재 필리핀, 싱가포르, 인도네시아, 베트남 등 총 10개국으로 구성
- ※ 아세안경제공동체(ASEAN Economic Community: AEC)는 ASEAN 10개국이 참여하는 경제연합체로 '15.12월 공식 출범

- EU와는 2015년 12월 이후 FTA 협상을 재개하였으며, 미국과는 양자간 FTA 협상을 잠시 중단하였으나,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 동반자협정\*(TPP)이 2015년 10월에 최종 타결됨.

\*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협력체(전 세계 GDP의 약 40% 차지)로 미국, 베트남 등 12개국이 가입하였으며, 향후 TPP 발효 시 동 지역의 경제 통합과 자유무역 확대가 기대

- 한편, 말레이시아는 1993년부터 아세안 자유무역지대(AFTA) 차원에서 ASEAN 6개 회원국\*과 역내에서 거래되는 모든 공산품에 대하여 5% 이하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공동유효 특혜관세(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s: CEPT) 제도를 시행함.

\* 싱가포르, 브루나이, 태국,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 필리핀

### 3. 대외거래

#### □ 주요 수출품 가격 하락으로 경상수지 흑자폭 개선 지연

- 2012년 이후 서비스 및 소득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며 경상수지가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, 큰 폭의 상품수지 흑자에 힘입어 2013~14년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각각 3.5% 및 4.3%를 기록함.
- 그러나, 2015년에는 서비스 및 소득수지 적자 규모 확대와 함께 원유 등 주요 수출품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, 경상수지 흑자폭이 축소되며 동 비중이 2.6%를 기록함. 2016년에는 원유 등 주요 수출품 가격이 소폭 상승함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폭이 전년 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.

#### □ 경상수지 흑자폭 감소, 환율 급등 등으로 외환보유액 감소세 지속

- 외환보유액은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으로 2011년까지 증가세를 보였음. 그러나, 2012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폭 감소, 환율방어를 위한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, 외국자본 이탈 등으로 외환보유액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.

&lt;표 2&gt; 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12	2013	2014	2015	2016 <sup>f</sup>
경 상 수 지	16,316	11,205	14,472	7,602	8,680
경 상 수 지 / GDP	5.2	3.5	4.3	2.6	2.9
상 품 수 지	36,643	30,577	34,626	26,688	27,251
수 출	208,795	202,285	207,799	175,310	174,670
수 입	172,152	171,708	173,173	148,622	147,419
외 환 보 유 액	134,940	130,492	111,765	96,650	91,150
총 외 채 잔 액	155,277	168,492	176,522	196,222	209,622
총외채잔액/GDP	49.4	52.1	52.2	66.3	67.8
D. S. R.	11.4	11.7	12.0	12.2	11.9

자료: IMF, IFS, OECD 및 EIU.

- 최근 달러 대비 링깃화 환율 상승\*에 따른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외환보유액이 2013년 5월 최대치인 1,414억 달러에서 2016년 2월 현재 956억 달러로 458억 달러 감소함.

\* '13.12월 3.2530 → '14.12월 3.4811 → '15.12월 4.2785 → '16.5월 4.0203

□ GDP 대비 총외채잔액 및 D.S.R. 각각 66.3%, 12.2%로 다소 높음

- 2015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66.3%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. 외채원리금상환비율(D.S.R)도 외채 증가와 수출 감소로 12.2%까지 상승하는 등 높은 수준을 기록함.

### Ⅲ. 정치·사회동향

#### 1. 정치동향

□ 나집 라작 총리, 2013년 5월 재선 성공 후 다소 안정적인 정권 유지

- 통합말레이기구(United Malays National Organization: UMNO) 중심의 14개 정당연합인 국민전선(Barisan Nasional: BN)은 1957년 말레이시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현재까지 장기 집권을 유지하고 있음.



- 2009년 4월 제5대 총리인 압둘라 바다위(Abdullah Badawi)가 사임하고 나집 라작(Najib Razak) 부총리가 제6대 총리로 취임하였음. 2013년 5월 총선 시 집권연합 국민전선의 부진 위기설이 있었으나, 집권당 UMNO의 당권을 장악하며 재선에 성공 후 비교적 안정적인 정권을 유지해 옴.
- 특히, 총선 결과로 여당연합인 국민전선이 과반 의석(133/222석) 확보에 성공함에 따라 여당의 정치적 기반이 강화됨.
- ※ '15.6월 야권연합인 국민연합(Pakatan Rakyat: PR)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정당간 이견이 격화되어 연합 해체를 공식 선언함. 이에 여당의 정치 결속력이 상대적으로 더욱 강화

#### □ 불법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정권신뢰도에 부정적 영향

- 나집 라작 총리는 말레이시아 국영 투자회사인 1MDB\*(1Malaysia Development Berhad)로부터 불법자금(약 7억 달러)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정권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.
- \* 해외 자원개발 실패와 불투명한 자금운용 등으로 부채규모가 약 420억 링깃(약 115억 달러)으로 추산
- 마하티르 전(前)총리는 2016년 3월 비자금 조성 의혹, 직권 남용 등을 혐의로 나집 총리를 법원에 제소하는 한편, 4월에는 나집 총리의 자산 동결을 법원에 요청하는 등 정치적 대립이 가중되고 있음.
- 한편 2014년부터 1MDB의 채무위기설이 대두되었고, 2016년 4월에는 18억 달러 규모의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지 못하여 디폴트가 발생함.
- ※ 1MDB 채무위기설 및 디폴트는 말레이시아 증시('16.4월 기준 전년 4월 최고점 1,867pts 대비 10% 하락한 1,672pts 기록) 및 외환시장 불안 가중

## 2. 사회동향

#### □ 정부의 엄격한 사회통제에 힘입어 양호한 사회안정도 유지

- 말레이계는 정치권을 주도하고, 중국계는 상권 중심으로 활동하는 등 민족간 역할 분담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음.
- 또한, 정부의 엄격한 사회통제로 인해 단기간 내 대규모 소요사태로 인한 사회불안 발생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됨.

### □ 말레이계 우대정책에 따른 민족간 갈등요소 잠재

- 민족 구성(말레이계 50%, 중국계 23%, 인도계 7%)이 복잡하고, 중국계에 부가 편중되어 있음.
- 정부는 1969년 부의 편중으로 인해 말레이계와 중국계 간 유혈사태가 발생하자 1970년대부터 부모 중 1인 이상이 말레이시아 국적을 지닌 말레이계를 우대하는 정책\*(부미푸트라)을 실시하고 있음.
- \* 기업지분 중 부미푸트라 의 필수 지분율을 30%로 확대, 공공기관 채용 시 말레이계 우대, 장학금 지원 등
- 동 정책으로 말레이계의 소득과 경제적 지위는 많이 향상되었으나, 민족간 불평등 해소를 위한 말레이계 우대정책이 오히려 민족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음.
- 특히 2020년까지 고소득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국계 자본이 필요한 상황이나, 중국계가 싱가포르 등지로 이주하는 등 소수계의 불만이 큰 상황임.
- 그러나, 여당의 주요 지지층인 말레이계의 반발로 급격한 정책수정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됨.

## 3. 국제관계

### □ 비동맹, 온건 중립 대외관계 노선 추구

- ASEAN을 중심으로 지역협력 강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, 이슬람협력기구(Organis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: OIC) 회원으로 이슬람국가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.
- 또한, 비동맹운동회의(Non-Aligned Movement: NAM)의 의장직을 수행하는 등 비동맹 노선을 확고히 견지해 오고 있음.

### □ 중국, 미국 등과의 협력관계 유지 노력

- 중국, 싱가포르 등 주변 국가와의 경제, 정치적 협력관계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.
- 중국과는 1974년 ASEAN 국가 중 가장 먼저 수교를 맺었으며, 인구의 24%가 중국계인 점을 고려하여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.

- 미국과는 마하티르 총리 이후 말레이시아가 반테러 활동과 지역 안정에 의견을 같이 하는 등 관계가 개선된 이후 경제적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.

#### □ 일본 등과 FTA 체결을 통한 경제협력 강화

- 세계 경제의 지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고자 일본('06년), 파키스탄('08년), 뉴질랜드('10년), 인도('11년), 칠레('12년), 호주('13년), 터키('14년) 등과 FTA를 체결하여 경제협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음.
- 동방정책 모델로서 일본을 설정하고 있으며,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일본의 자본, 기술 획득을 위하여 우호관계를 지속 유지하고 있음.
- 또한, EU와의 FTA 협상이 재개되었으며, 한국, 대만, 이집트 등과의 FTA도 검토하고 있는 등 시장개방 가속화 기초를 지속할 계획임.

## IV. 국제신인도

### 1. 외채상환태도

#### □ 외채상환능력은 비교적 양호하나 외채지표 악화로 모니터링 필요

- 2012년 이후 총외채규모가 외환보유액을 넘어서며 2015년말 기준 총외채규모 및 외환보유액이 각각 1,962억 달러, 967억 달러를 기록 중임.
- 현재 ECA 앞 대출금(총 74억 달러\*) 중 연체가 없으며, 중장기 외채가 총외채의 약 74.5%를 차지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외채상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.
- \* 단기 20억 달러, 중장기 54억 달러로 중장기 대출이 전체의 72.9%를 차지
- 그러나,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이 2012년 55.6%에서 2015년 111.9%로 확대되었고, GDP 대비 총외채 잔액 비중도 66.3%로 증가함. 또한, D.S.R도 점진적으로 증가세를 시현하며 12.2%를 기록 중으로 외채지표가 악화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.

## 2. 국제시장평가

- 환율 상승 등 금융시장 불안, 최근 정권신뢰도 하락 등에도 불구하고, 현재까지 주요 신용기관 모두 기존 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.

<표 3>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

평가기관	최근 평가 등급		종전 평가 등급	
당 행	B2(Stable)	(2016. 5.)	B1(Stable)	(2015. 10.)
OECD	2등급	(2015. 6.)	2등급	(2014. 6.)
Moody's	A3(Stable)	(2016. 1.)	A3(Stable)	(2015. 1.)
Fitch	A-(Stable)	(2016. 2.)	A-(Stable)	(2015. 6.)

## 3. 우리나라와의 관계

- 국교수립: 1960년 2월 23일(북한과는 1973년 6월 2일)
- 주요협정: 무역협정(1962년), 문화협정(1965년), 항공협정(1967년), 이중과세방지협정(1983년), 사증면제협정(1983년), 과학기술협력협정(1985년), 투자보장협정(1988년), 해운협정(1988년), 자원협력양해각서(1995년)
-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

<표 4> 한-말레이시아 교역 규모

단위: 백만 달러

구 분	2013	2014	2015	2016.3	주요품목
수 출	8,588	7,583	7,735	1,342	석유제품, 반도체, 평판디스플레이, 철강관, 자동차
수 입	11,096	11,098	8,609	1,944	천연가스, 석유제품, 반도체, 원유
합 계	19,684	18,681	16,344	3,286	-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## V. 종합 의견

- 2012~14년 중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활성화,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개발 투자 등에 힘입어 연평균 5%대를 상회하였음. 그러나 2016년에는 전년에 이어 석유 및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성장률이 4.3%로 지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.
- 정부의 세수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수기반 약화, 인프라개발 투자 등으로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기록 중임. 한편 2015년에 석유 등 주요 수출품 가격 하락으로 전년 대비 경상수지 흑자폭이 축소됨.
- 경제구조는 만성적 재정적자와 높은 무역의존도 등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으나,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정책에 힘입어 인프라 수준이 양호함. 또한 원유,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향후 자원 국제 가격 회복 시 성장잠재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임.
- 2013년 5월 나집 라작 총리가 재선에 성공한 후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정국을 운영하고 있으나, 최근 발생한 불법자금 수수 의혹은 정권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. 한편 말레이계를 우대하는 부미푸트라 정책으로 인해 소수계의 불만이 큰 상황이나, 대규모 소요 사태로 인한 사회불안 발생 가능성은 낮음.
- 중장기 차관 위주의 양호한 외채구조 등으로 외채상환에는 단기적으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, 최근 외채지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.

책임조사역 박종국 (☎02-6255-5704)  
E-mail: parkjk@koreaexim.go.kr